말띠 건설인의 새해 소망

“ 국민의 신뢰를 듬뿍 받는 건설업이기를 … ”

건설업에 30여 년 간 몸담아 온 건설인으로서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 건설업은 참으로 많은 영욕을 겪었고 그 속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기도 하였다. 건설업은 지난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국민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업계 스스로 그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그야말로 찰나와 같은 순간에 허물어져 국민들로부터 원망과 질타를 받는 힘든 시기도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 건설업은 뼈아픈 자기 반성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빠르게 건실화되어 가고 있으며, 지난날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신뢰와 기대를 점차 회복해 가고 있어 건설 경영인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말띠 경영인으로서 소망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건설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건설인 스스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필자 역시 미약하나마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할 생각이다.

지난해는 필자에게 있어 아주 특별한 보람을 느낀 해였다. 우리 회사가 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한 정보화 우수 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정보화 건설부문 대상 ’을 수상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회사에 있어 단순한 수상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보화에 대해 대외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한편, 이제 건설업에 있어 정보화가 핵심 경쟁력의 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올해에는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과 함께 EVMS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VMS 시스템은 공정과 원가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건설 관리의 선진화는 물론 제조업 수준의 원 단위 원가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

周易 에 보면 말은 항시 서서 자는 주행성(走行性) 동물로서 동정심이 많고 정직하며 근면하다. 금년에는 이 말처럼 어려운 이웃에 좀더 많은 관심과 봉사를, 자신과 사회에는 정직하게,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오풍영 · 고려개발(주) 대표이사

“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만들 터 ”

말띠 해에 태어나는 사람은 팔자가 세다 하여 임산부들이 지난 연말 서둘러 조기 출산을 하였다 하고, 어떤 신혼 부부들은 아기 갖는 것을 1년 뒤로 미루기로 하였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말띠 생들이 팔자가 세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이러한 걱정은 기우일 뿐이다.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48년 전 희망과 꿈을 안고 태양이 막 피어오르는 아침 시간에 말의 기상을 마음껏 자랑하듯 힘있는 백말 띠의 남자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앞을 바라보면 끝없이 펼쳐지는 넓은 들판 저 편에 맑은 물을 가득 실은 강 줄기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상도의 어느 한적한 시골이다. 그 곳에서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순탄하게 보내고, 지금은 서울에서 제법 의젓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한 부분을 열심히 담당하고 있는 중년의 신사가 되어 있다.

올해는 임오년(壬午年) 말의 해이다. 그런 만큼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한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김으로써 한 단계 발전하는 해를 만들고 싶다. 그 계획 중의 하나가 끊임없이 솟구치는 만학도의 꿈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인 석사 학위 논문을 올 상반기 중에 작성하여 한발 더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직장인으로서 가장 절실한 바람인 승진을 올해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나 규정을 고쳐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나아가 동료들로부터 존경받고, 상사들에게는 인정을 받으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친구들과 함께 계획하고 있던 백두대간을 종주하면서 자연의 신비를 마음껏 감상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를 찾아보고, 또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계획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 지금까지 평탄하게 살아온 삶을 밑천 삼아 올해는 어느 해 못지 않은 더욱 멋진 한 해를 만들어 말띠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신갑철 · 서울시청 감사담당관실 토목주사

말띠 건설인의 새해 소망

“ 월드컵 대회가 경제 회생의 발판이 되었으면… ”

21 세기를 열었던 2001 년은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 한 해였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게이트 ’들과 민족의 숙원 사업으로 추진되던 남북 경협의 중단, 미 테러 사건 등은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업계는 실로 눈부신 업적을 쏟아냈다. 동북아 항공의 중추가 될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해 개항시켰고,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을 완공함으로써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올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한 달간에 걸쳐 지구촌을 열광시킬 월드컵 축구 대회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10 개 경기장을 성공적으로 건설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월드컵의 해인 2002 년의 해가 밝았다. 온 국민이 염원해 마지않던 월드컵 축구가 우리나라 10 개 도시에서 열리게 된다. 월드컵 관련 인사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올해는 가장 긴장되며 또 설레는 해가 되겠지만 김해국제공항 확장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에게도 임오년 올해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1940 년 부산 수영비행장으로부터 출발한 김해국제공항은 오는 5월 국제선 터미널 건물을 신축하고, 새로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확장 개선 공사를 거쳐 말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공항으로 거듭난다. 확장된 김해국제공항은 재단장과 동시에 성대한 막을 올리는 2002 월드컵 축구 대회와 이어 열릴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제2 국제 관문 공항으로서 손색없는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대규모 국제 대회를 훌륭하게 치러내면 한 나라의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88 서울올림픽이 한국 경제의 도약대로 작용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시설물을 짓는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월드컵 축구 대회와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끝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내 경제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우수한 설계 및 시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해외의 선진 업체에 비해 턱없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피승우 · 대우엔지니어링 과장 · 김해공항 확장 공사 현장

“ 미래를 바라보고 달리자 ”

1978 년 말띠 해에 태어나 올해로 세 번째 말띠 해를 맞는 대학원생이다. 올해는 말띠 해일 뿐만 아니라 올해만 지나면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크다. 최근의 우리 사회 전반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발전을 넘어 일종의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몇 해 전에 IT 열풍과 함께 건설업계에도 너도나도 벤처기업 만들기 유행이 일더니 최근에는 재개발 붐과 함께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리츠(REITs), 재개발, 부동산만큼 많이 들었던 단어도 없다. 물론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분야가 부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어느 분야든 지나친 유행은 한정된 파이를 많이 차지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 기존의 분야들이 소외되거나 발전이 더뎌지게 되는 부작용도 생겨날 것이다. 주위의 학우들을 바라보면 너무도 비슷한 기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학점, 어학 실력, 자격증 외에 자신을 남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물론 학점이나 어학 능력 같은 단순한 기준들로만 평가하는 기업이나 사회의 틀의 영향이 크다고는 생각되지만, 자신의 15 년 후, 혹은 30 년 후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노력은 보기 힘들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착실히 준비를 해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막연히 유학을 꿈꾸고, 보다 유망한 분야에 진출하길 바라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 없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우리 사회의 지나친 유행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몇 해전부터 건설업계가 어렵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고, 주위에서도 몇몇 학우들이 중도에 건축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15 년, 30 년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다면 일시적인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변화를 수용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올 한 해는 미래를 향한 긴 여정에서 보다 멀리 나아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정재욱 · 연세대 건축공학과 21 세기 건설연구실